최저 신용층엔 빛바랜 '햇살론'

금리 높고 요건 까다로워 9~10등급 대출 4%도 안돼

7등급 30%몰려…무등급은 0.1% 대조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수혜층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7등급에 몰려 정작 최저 신용층(9~10등급)은 햇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운영자금 금리가 기존 중소기업청의 특례보증 보다 최대 6.3% 포인트 높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승인된 햇살론 대출 1만3469건(1107억원)을 집계한 결과 최저신용층인 9~10등급의 경우 9등급 443건(3.3%), 10등급 97건(0.7%) 등 4.0%에 불과했다. 대출 금액은 24억원으로 2.1%에 그쳤다.

특히 무등급자의 경우 대출 실적은 전무하다. 무등급자는 신용거래를 개설한 지 6개월 미만이거나 신용정보가 없는 자, 미성년자 등을 의미한다. 무등급자 대출 건수는 6건(0.1%)이었고, 금액은 1000만원으로 비중이 '제로(0%)'였다.

반면, 7등급은 3991명으로 가장 높은 29.6%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6등급 3590명(26.6%), 8등급 1866명(13.8%) 순이었다. 1~5등급자도 3476건의 대출을 받아 25.8%의 비중을 보였다.

은행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9~10등급자들이 대출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쉽지않다고 설명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9~10등급자들도 대출 문의를 많이 하지만 대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출이 잘 성사되지 않고 있다"며 "가급적 요건에만 맞으면 대출을 승인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민들은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저신용층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한 햇살론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한다.

또 햇살론의 영세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금리가 기존 보다 인상돼 제도 시행 취지를 희석하고 있다. 중기청이 지난 1월부터 시행해오던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햇살론으로 통합하면서 사업운영자금의 금리가 기존 중기청이 적용하던 6.8~7.3% 보다 3.3~6.3% 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최대 2000만원 한도인 사업운용자금 금리는 최고 10.6%에 달한다.

이 금리는 새마을 금고가 지난 3월 연 4%대 금리,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시행한 저신용사업자를 위한 MG 마이크로크레딧 금리의 2배를 웃도는 것이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햇살론이 신용이 낮은 저소득측을 위한 상품임에도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시행에 들어갔다가 논란이 일자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저신용자라도 가구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햇살론 대출을 규제키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45)씨는 "대부업체로 내몰린 서민들을 돕기 위해 출시된 상품에 까다로운 대출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은행과 당국이 소극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금리 인하와 대출규정을 크게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여름 제철 천도복숭아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11일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여름제철 과일 중 하나인 천도복숭아를 선보였다. 천도복숭아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피부 미용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가격은 100g에 590원. 〈광주신세계 백화점 제공〉

"쌈싸먹기 겁나요"

상추 100g 1100원 한달새 50%⬆…마늘·양파 등 채소값 오름세

이상기후로 급등한 채소값이 8월 들어서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상추(상품·100g) 소매가격은 1100원으로 한달새 50.7%나 올랐다.

도매가격 오름세는 더 가파르다. 농산물유통공사 유통정보에 따르면 8월 현재 마늘(깐마늘·1kg)은 1년 사이 232.5% 폭등해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상추(치마·상급) 4kg짜리 한 상자가 47.7%가 올라 2만6000원에 판매됐다. 양파(상품·1kg)는 45.5% 오른 800원에, 배추(상품·1kg)는 42.8%가 오른 1000원에, 시금치(상품·4kg)도 38.1% 증가한 2만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상추쌈에 들어가는 양념류도 덩달아 가격이 올랐다. 소매가 5930원에 판매됐던 마늘(깐마늘·kg)도 65.2% 올라 8월 현재 9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밖에 시금치(71.0%), 애호박(37.7%), 고구마(35.1%) 같은 채소류 가격 대다수가 이상기후로 출하량이 줄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계절과일인 수박과 참외, 복숭아도 도매가격 기준으로 각각 38.5%, 50.0%, 49.1%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마늘, 양파 같은 양념 채소와 배추, 무 같은 엽근 채소는 8월까지 가격이 오르다가 9월부터 다소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우리미소금융 광주에 거점상담소

영세 용달차 사업자 지원을 위한 우리미소금융 거점상담소가 광주에 개설된다.

11일 우리미소금융재단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우리미소금융 거점상담소를 설치하기 위해 광주용달협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거점 상담소는 1t 이하 화물차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대출기관으로, 일반대출도 담당한다. 재단은 상담소가 문을 열면 직원들을 용달차협회에 상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단은 또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지점 3곳을 추가로 내는 등 미소금융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점이 신설되는 지역은 경기도 성남과 대구, 부산 등 3곳이며 지점 신설에 따라 대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 재원 100억원을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재단은 전국 6개 지역에 지점을 확보하고 3개 거점 상담소를 운영하게 됐다.

재단은 지난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약을 맺어 독자적인 상품을 출시했으며 전국 420여개 사회복지관을 통해서도 상담 및 신청을 받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정기예금 5개월來 최대 증가

기준금리 인상…7월 12조4300억

지난달 은행 정기예금이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예금금리가 상향 조정된 결과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한은은 7월 말 은행권 수신 잔액이 1048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 수신이 늘어난 것은 전적으로 정기예금 증가 덕분이었다.

정기예금은 한 달 사이 12조4300억원 증가해 지난 2월의 14조8400억원 이후 월별 증가액으로는 가장 많았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마다 예금금리가 상향 조정되면서 정기예금 증가규모가 커졌다"고 말했다.

정기예금 산정 근거가 되는 은행채 3개월 물 발행 금리는 6월 말 2.49%에서 지난달 말 2.61%로 올랐고 지난 10일에는 2.66%를 기록했다.

반면 수시입출식예금은 부가가치세 납부로 4조8000억원 줄었고 양도성예금증서(CD)도 4조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의 금리 경쟁력이 약해지고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이뤄지면서 6조5000억원 감소했다.

은행의 여신 측면에서 보면 기업대출이 3조2000억원(대기업 2조1000억원, 중소기업 1조1000억원) 늘었고 가계대출은 1조5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을 포함할 때 2조4천억원 늘어 6월(2조7천억원)에 이어 꾸준히 증가했다.

대출금리 수준이 아직 낮은 편인데다 은행들이 대출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집단대출도 늘어난 결과로 풀이됐다. /연합뉴스

90억 규모 게임문화재단 17일 출범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 등을 목적으로 게임업계가 9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재단이 정식 출범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9개 게임사는 9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해 게임문화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오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기금으로는 엔씨소프트, 넥슨, 한게임 등 대형업체가 각 20억원씩 60억원을, 네오위즈게임즈와 CJ인터넷이 각 10억원씩 20억원을 출연한다.

한빛소프트,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엠게임 등은 각 2억원 가량을 출연키로 했다.

재단이 정식 출범하면 90억원의 기금으로 게임업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연합뉴스

'우수고객' 리볼빙 금리, 할부 금리보다 높다

최고 6%P 이상

신용도가 높은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할부 형태의 리볼빙 금리가 일반 할부 금리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결제라고도 불리는 리볼빙은 신용카드 이용액의 일부만 결제하면 잔여한도 안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리볼빙 금리는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사용 시 모두 9.84~28.84%로 할부 금리인 수수료율(10.8~21.9%)보다 최고 금리가 6.94%포인트 높다. 일반 현금서비스 금리와는 같다.

이처럼 대부분의 카드사가 리볼빙 금리가 할부 금리보다 4~6%포인트 정도 높고 현금서비스 금리보다는 1~2% 낮거나 비슷하다.

이는 리볼빙은 카드 이용액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면 할부보다 장기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위험)를 고려한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리볼빙 고객은 보통 신용이 우수한 고객이다. 연체자, 신용불량자, 거래 중지 중인 고객은 리볼빙을 사용할 수 없다.

카드사들도 리볼빙을 홍보할 때 마치 특권을 주는 것처럼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회원 중에서도 일부 고객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연합뉴스